



주간통일정세 2008-40(2008.09.29~10.0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승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4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51일만에 축구관람(10/4, 조선중앙통신)

- 와병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2주년을 맞아 김일성종합대학 팀과 평양철도대학팀간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월14일 군 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후 51일째 만임.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리재일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꾼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관람 일시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대학생들을 높은 실력과 튼튼한 체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은 주체혁명 위업 완성과 부강조국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대학의 교육교양과 체육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통신은 소개

● 北, 김정일 공개활동 반복 보도(10/4, 조선중앙통신; 10/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이 4일 오후 10시 25분 ‘건강이상설’ 속에 잠적해 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축구경기 관람 소식을 처음 보도한 이후 북한 매체들은 5일 오전,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5일 첫 뉴스 시간인 오전 6시 김 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2주년을 계기로 열린 대학생축구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정규 뉴스 시간인 오전 7시와 10시에 이를 다시 송출, 평양방송도 첫 뉴스 시간인 오전 7시 경기관람 소식을 보도한 이후 오전 8시와 10시에 각각 반복 보도
- 방송들은은 중앙통신의 전날 보도내용과 마찬가지로 관람 일시와 장소 등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나 “김정일 장군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경기를 보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고 보도
- 위성으로 중계하는 조선중앙TV는 일요일인 이날 오전 9시13분께 김 위원장의 경기관람 소식을 전했으나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은 내보내지는 않은 채 아나운서 멘트로만 관련 소식을 내보내는 데 그침.

● 北, 김정일 삼복철 시찰 ‘피로’ 부각(10/2,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 2일로 49일째 공개활동을 하



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신문이 이날 ‘인민이여 천만년 잊지 말자!’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7~8월 현지지도 등 공개활동을 “하늘이 놀라고 삼복이 머리숙인”, “초인간적” 행보, “헌신의 영웅신화” 등으로 치장하며 집중 부각시킴.

-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올해 정초 “눈보라 강행군”으로 현지지도의 첫 걸음을 뗀 후 “한 여름의 무더위를 헤치며 삼복철 강행군”을 단행했다면서 “7월과 8월의 60여일간” 시찰한 단위는 30여개이고, 초복부터 말복까지 20여일간 시찰 거리는 1만여리가 된다고 소개
- 신문은 말미에 “원수들은 조선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또한 조선이 번영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온갖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고 더 높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내달려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강행군 발걸음에 보폭을 맞춰” 강행군을 하자고 주민들에게 호소

나. 정치 관련

● 北, 10·4 한들 ‘이행’ 위한 ‘연대’ 주장(10/4, 민주조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한해동안의 사태와 그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년이 되도록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과거로 후퇴했으며 관계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급속도로 진전되던 10·4선언의 이행과정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후 완전히 정지됐다”고 주장
- 노동신문도 ‘북남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무시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는 반민족적 책동으로 북남대화들이 중단되고 협력사업들에 차단봉이 내려졌으며 북남관계는 6·15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
- 민주조선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이행’ 요구에 이명박 정부가 ‘과거 모든 남북간 합의 정신의 존중과 이행’으로 답하는 데 대해 “10·4선언을 지난날의 북남 합의문건들과 한 데 뒤섞어 논의하자는 소리도 하고 전면적 대화도 들고 나왔지만 그것은 여론을 호도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모면하려는 오그랑수(꼼수)”라고 주장

● 北 양형섭,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 행동지침(10/3, 조선중앙통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10·4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해 북남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라고 강조
- 양 부위원장은 3일 평양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보고회 보고를 통해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과 남은 민족경제



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발전시키며 다방면적인 협력사업도 적극 벌여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언급

- 그는 이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통하여 이룩한 훌륭한 결실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를 공고히 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 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확대 강화하며 북·남·해외의 3자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을 주장
- 또 이날 단군릉 앞에서는 북한의 강철원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이 개천절 기념행사 보고자로 나서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면서 그 성과를 말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
- 개천절 기념행사에서는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오익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강련학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군제’가 진행

● 北교육성, 南 역사교과서 개악이라고 비난(10/3, 교육성 대변인)

- 북한 교육성 대변인은 최근 남한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개편 주장에 대해 “역사교과서 내용을 친미, 반공적인 방향으로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
- 교육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역사교과서 개편 방향이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왜곡하거나 삭제하고 우리(북한)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악랄하게 비방 중상하며 우리에게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개악 책동은 정의와 진리에 대한 난폭한 유린, 역사와 진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6·15 이후 남조선(남한)에서 높아진 자주, 민주, 통일기운을 거세 말살하려는 불순한 범죄적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비난

● 北, “일심단결” 사상교육에 당력 총동원(10/3,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속에서 북한이 전역의 당조직을 동원해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 방송은 “각지 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선군혁명의 위력한 무기인 일심단결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여 나가고 있다”고 보도
- 방송은 평양시와 자강도, 평안남도 당조직들이 이같은 사상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며, 황해북도에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 평양방송도 김 위원장의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라는 논문 발표 18주년을 맞아 “장군님(김정일)께서는 우리당과 혁명을 영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당 건설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현명하게 이끌어 오시었다”고 찬양
- 北, ‘10·4선언’ 기념 토론회 개최(10/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일 평양에서 10·4 선언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연구토론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토론회에는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김원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을 비롯해 사회단체 책임일꾼과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으며, 김영대 위원장, 태형철 사회과학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리중혁 조국통일연구원장, 로성실 여맹 중앙위원장이 각각 토론했다고 통신은 보도
 - 토론자들은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6·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한 진로를 밝힌 실천적 공동문건”이며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 지침”이라고 강조
 - 이들은 또 10.4선언이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선언”이라는 데 대해 해설하고 “선언을 이행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으며, 10.4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탁월한 사상과 영도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고귀한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
- 北, 김정일 건강이 곧 강성대국(9/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월 30일 ‘혁명가의 한생은 애국헌신의 한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장군님(김정일)께서 잠깐 외국방문의 길을 떠나시어도 분초를 계산하며 시시각각 장군님을 기다리는 우리 군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곧 조국이고 민족이고 강성대국이다”라고 언급, 신문은 이어 “한 순간을 살아도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에 살고, 앉으나서나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우리 군대, 우리 인민이다”고 주장
- 北, 10.4선언 외면 땀 파국위기 못 벗어나(9/29,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조선중앙방송은 29일 10·4선언 채택 1주년을 앞두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계속 외면한다면 북남관계는 오늘의 파국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 방송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이행은 시대의 요구”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정



부 출범 이후 “6·15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10·4선언을 성과적으로 이행해 조국통일 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엄중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언급

-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새 세기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이정표”, “민족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통일강령”이라고 지적하며 “현시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

● **北매체, 이상희 국방 집중 비난(9/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이상희 국방장관의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언행을 일일이 들며 남한의 군이 “이명박 정권의 반공화국(반북) 대결정책 실현의 맨 앞장”에 서 있다고 맹비난, 노동신문은 이상희 장관의 이름 없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로만 지칭해 이 장관을 집중 공격
- 신문은 이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주한미군사령관을 방문한 사실부터 국회 답변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이나 북한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것 등을 모두 지적하면서 “동족과의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 망발”, “화약 냄새가 물씬 물씬 풍기는 대결 망언” 등으로 격하게 비난

● **노동신문, 자위적 국방력 더 강화할 것(9/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반공화국(반북) 선제공격 기도”이고 이는 “6자회담 합의사항을 뒤집어 엮는 배신행위”라고 비난, 노동신문은 “무모한 선불질 기도를 버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최근 육군 병력 4천200여 명을 태평양지역에 추가로 배치키로 했고 미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했다고 주장
- 신문은 또 미국이 “대조선(대북) 선제타격 책동에 광분할수록 그것은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 줄 뿐”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선불질을 하려는 미제의 범죄적 기도가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예성강발전소 준공식(10/3, 조선중앙TV)**

- 황해북도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준공식이 3일 김영일 내각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이 발전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첫 현지시찰 및 공개활동(1월 6일 보도) 장소로, 김 위원장은 당시 예성강발전소가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면서 “연관된 부문에서 적극 도와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음.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와병 설 속의 김 위원장은 발전소 준공을 축하해 건설자와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보냈으며, 이날 준공식에서 감사가 전달됨.

● FAO, 北 수확량 현지조사 내주 재개(10/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이르면 내주 중반부터 북한의 올해 농작물 수확량을 현지 조사하고 이모작 곡물량도 추정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FAO는 1995년부터 해마다 북한 현지에서 작황과 식량 공급조사를 벌였으나 2004년 북한이 조사단 방북을 거부, 조사를 못하다가 이번에 북한과 협의를 거쳐 4년만에 조사를 재개, FAO의 존 오데오 조정관은 “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농업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황해북도와 평안남도를 비롯한 6개 지역을 방문해 해당지역 관리와 협동농장 책임자를 만나 수확중이거나 재배중인 곡물을 직접 점검한다”고 설명
-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올해 수확량, 올 겨울과 내년 봄 이모작 곡물량, 식량지원을 포함한 곡물수입 필요량 등을 산출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올해는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없는데다 계속 이어지는 좋은 날씨와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으로 기대

● 北, 대외관계 개선으로 경제활성화될 것(10/2, 평양방송)

- 북한내 외국계 합작 금융기관인 대동신용은행(DCB)의 나이젤 카위 총재는 북한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대외관계 개선 움직임 등을 볼 때 “앞으로 조선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평양방송이 2일 보도
- 그는 또 “조선은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다른 나라들과 관계도 점점 폭이 넓게, 좋게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반드시 개선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하고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서 다음 해에는 더 많은 회사들이 조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작은 힘이나마 조선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 베네룩스 기업들 방북…대북 투자 추진(9/30, 연합)

-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의 기업들이 30일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대북 투자를 적극 추진, 3국 기업인과 중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 10여명은 9월 30일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 4박 5일간 북한의 정보기술(IT) 연구를 주도하는 ‘조선컴퓨터센터(KCC)’와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센터 등을 둘러 보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
- ‘베네룩스 3국 상공회의소’는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29일 베이징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북한의 산업 발전상을 비롯해 투자처



로서의 장·단점 등을 투자자들에게 설명

- 방북단을 이끄는 국제정보기술자문회사 GPI 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설명회에서 “북한의 IT 분야 종사자들은 기술 수준이 높고 애니메이션, 기업행정 응용프로그램, 웹사이트 제작 등으로 분야별로도 전문화돼 있다”면서 “북한은 유럽 기업들의 역외시장 및 아웃소싱 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

*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고 독일, 영국, 스웨덴, 체코, 폴란드 등이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음.

라. 군사 관련

● 北, 국군 건군 60주년 화력시범 비난(10/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일 국군이 건군 6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6일 경기도 포천에서 벌인 지상·공중 합동화력시범에 대해 “북침을 위한 모험적인 불장난”이라고 비난, 신문은 특히 이번 화력시범이 10년만에 부활된 점을 들어 이명박 정부가 “우리(북한) 군대와 인민을 자극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언급

● 군사실무회담 조기종결…냉각기 지속될 듯(10/2, 연합)

- 남북 군사당국이 8개월여 만에 만났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헤어져 남북간 관계에 냉각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남북은 2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군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못함.
- 특히 이번 회담은 군사회담으로는 지난 1월 25일 이후 8개월여만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 차원의 대화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열린 당국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양측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결함. 더욱이 양측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다음번 회의 날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해 군사 당국간 접촉의 ‘추진력’을 얻는데도 실패함.
- 실제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 민간단체들이 북한을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함. 특히 북측은 전단 살포행위가 계속되면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청난 후과(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며, 개성과 금강산지구 내에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할 수 있다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회담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에서 전단살포 행위는 군사당국간 합의사항으로 우리 당국에선 철저히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단체에서 전단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제한이 있어 북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언급함. 북측은 회담에서 한미 군사합동훈련과 남측의 무력증강 등을 거론하면서 남측이 한반도 정세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짐.

- 국방부 관계자는 “8개월여간 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회담이어서 어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라기보다는 쌍방이 시급히 제기해야 할 문제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다음 회담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함.

● 北미사일 발사시설, 개보수 정황 포착(10/2, 연합뉴스)

- 군 소식통은 2일 “북한의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기지 움직임에 대해 미국 측과 정보를 공유해 왔다”면서 “최근 북한이 무수단리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시설을 교체하는 등 대폭적인 개보수작업을 벌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힘. 소식통은 “현재 발사대를 지지하는 타워 크레인을 교체하고 미사일 지지대를 보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발사 직전 미사일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건물도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언급함.
- 그러나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대북 첩보 활동은 잘하고 있지만 군사적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현재까지 특이동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발표
- * 무수단리의 옛 지명은 대포동으로, 북한은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서 1998년 8월 31일 대포동1호 미사일을, 2006년 7월 5일 대포동2호 미사일을 각각 발사했었음.

● 北, 한미상호방위조약 55주년 비난 논평(10/1, 노동신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 노동신문은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이 조약의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되풀이함. 신문은 이날 ‘침략과 전쟁을 합법화한 범죄적 조약’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미국은 냉전이 종식되고 6.15통일시대가 펼쳐진 오늘에 와서도 이 조약을 걸고 남조선 강점 정책과 반공화국 대결전쟁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
-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가 계속되는 한 “남조선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을 면할 수 없고 온 민족이 분열의 비극만이 아니라 핵전쟁의 참화까지 입을 수 있다”고 주장

● 北,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10/2, 연합뉴스)

- 북한이 2년 전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1일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여러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복구하려는 의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 소식통은 “특히 핵실험장 인근에서 포착되고 있는 연기는 복구 작업에 사용됐던 의복이나 장비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징후가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

* 북한은 길주군 풍계리의 한 야산에 동쪽과 서쪽으로 갭도를 뚫고 2006년 10월 9일 동쪽 갭도에서 핵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김정일 은둔 속 당·정 간부들 량강도 참관(9/30,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 공개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과 내각 간부들이 대거 9월 30일 북한의 대표적인 감자 주산지인 량강도 대흥단군을 방문
- 조선중앙방송은 1일 “성·중앙기관, 량강도내 일꾼들이 9월 30일 대흥단군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며 “창평농장 제2작업반과 홍암농장 제4작업반 포전들,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 백산돼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등을 참관했다”고 소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논문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발표 10주년을 맞아 이뤄진 참관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광범기 내각 부총리, 박남기 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참가
-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손호인 교수에게 생일상을 전달하는 등 ‘얼굴없는 통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마. 사회·문화 관련

● **北평양중심부 청년동맹 청사 전소(10/5, 연합뉴스)**

- 북한의 평양 중심부에 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청사가 9월 추석 때 방화 용의가 있는 대형화재로 인해 전소되다시피 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이번 화재가 누전 등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방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 당국은 추석날 불이 난 점 등을 이유로 치밀한 방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짐.

● **중국산 ‘멜라민’ 최대 피해국은 북한(10/4, 조선일보;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은 멜라민이 잔뜩 든 중국산 식품으로 북한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당국의 통제로 소비자들의 입이 봉쇄됐다고 주장, 최근 입국한 평양 출신 여성은 “최근 수년간 평양 등 주요 도시에 10~20kg짜리 중국산 저가 분유가 대량 유통됐다”고 함. 그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소비한 이 분유로 인해 평양과 함흥에서 아기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북한 부유층은 아예 중국산 분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 이런데도 서민들이 중국산 분유를 아기들에게 먹이는 것은 그나마 없으면 아예 아기를 굶겨 죽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분유 외에 중국산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 추세, 유통기한 지난 항생제와 검증 안된 의약품들이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기 때문임.
- 신의주 출신의 탈북자는 “중국산 항생제를 맞고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아 중국산 의약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함. 소비자들이 중국산 의약품을 겁내자 최근에는 유엔 등 외국 지원 의약품인 것처럼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기도 함.
- 의사 출신의 탈북자는 “의약품이 절대 부족한 북한에서 중국산을 믿지 못하는 간부들과 부유층은 서방국가에서 지원된 의약품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하면서 서민들은 대외지원 각종 의약품들을 간부들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구경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
- “남한 것을 먹고 죽거나 아픈 사람은 없었다”는 소문이 북한내부에 퍼지면서 한국산에 대한 고위층이나 부유층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전언
- 특히 유엔의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가 9월 26일 멜라민 파문과 관련,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식품시장을 면밀히 감독할 것과 인체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된 불량 식품을 수거·폐기할 것을 공동 성명을 통해 촉구했으나 북한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WHO 베이징사무소의 알렉산더 공보관은 “북한에서 중국산 멜라민 첨가 유제품이 발견됐는지 여부는 북한 당국이 보고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멜라민 제품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은 북한 당국 스스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북, 亞여자복싱 금4·은2·동3(10/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9월 23~28일 인도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여자복싱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의 성적을 거뒀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기초식품 전시회 개최(10/2, 조선중앙통신)

- 전국 기초식품 전시·발표회가 9월 30일부터 2일까지 평양시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전시회에서는 장(醬) 생산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터득한 20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됨.



● **북한 전역 나무종자 채취 한창(10/2, 조선신보)**

- 북한에서는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아 나무종자 채취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각 도·시·군과 공장·기업소별 양묘장 조성과 상록수 종류의 종자 채취가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의 중점목표라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장려되는 것은 경제적 효과성이 큰 창성이깔나무 종자 채취사업”이라고 밝힘. 이깔나무는 건축재, 전주, 침목 등으로 쓰이고, 결이 곧으며 생장이 빠른 장점

● **北, 식량낭비 이유로 음식장사 금지(제223호, 오늘의 북한소식; 10/2, 연합)**

- 북한 노동당이 “식량 낭비를 없애자면 먹자판을 비롯해 우리 격식에 맞지 않게 결혼식과 같은 각종 집안 대사를 진행하는 것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방침을 내림에 따라 북한 전역의 주요 도시에선 9월 20일부터 시장에서 음식장사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일 보도

- 소식지에 따르면 시장에서 두부밥은 개당 200원, 까만 밀가루 빵은 1kg당 1천300원, 옥수수국수는 그릇당 1천300~1천500원이며 떡과 순대는 kg당 각각 2천300원, 2천600원으로 비싼 편이며, 북한의 쌀값은 현재 kg당 2천500원인 것으로 알려짐.

- 소식지는 북한의 군대도 식량난을 겪고 있다면서 평남 강서군 태성리에 주둔한 91훈련소 보병구분대의 경우 100명의 군인 중 70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중대가 있을 정도이고, 군인들이 허약해져 “12월부터 시작될 동기(冬期)훈련의 강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임.

● **北, 가을철 조류독감 방역에 총력(10/2, 조선신보)**

- 북한의 방역기관들은 가을철 동물 방역기간을 맞아 조류독감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재조선신보가 2일 보도

● **北주도 태권도세계대회 2011년 평양 개최(10/2, 조선신보)**

-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2011년 주최하는 제1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평양이 결정됐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 신문은 9월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18차 ITF 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하고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F인사들과 60개 나라 대표들은 17번째 연륜을 새기며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태권도의 모국인 조선(북)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하는 데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열렬한 지지와 찬성을 표시했다”고 소개

* 평양에서는 1992년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2000년 제5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했었음.



- **묘향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내등록 추진(2008년 10월호, 조국)**
 - 북한은 묘향산의 역사유적과 명승지를 연내 유네스코(UNESCO) 세계복합유산으로 등록하고 2009년부터 칠보산과 구월산, 용문대굴 등 명승지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북한 문화보존지도국의 리의하 부국장이 밝힘.
 - 그는 또 “지금 개성지구에 있는 고려시기의 유적들인 만월대와 개성성, 고려성균관과 표충비, 선죽교와 왕건왕릉, 공민왕릉 등 10여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

- **北 발명·신기술 전람회 개막(10/2, 조선중앙통신)**
 - 제10차 전국 발명 및 신기술 전람회가 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람회에는 사회단체, 성(省), 중앙기관과 각 도(道)에서 선발된 1천500여 건의 발명과 신기술 자료가 실물과 모형, 도해, 다매체(멀티미디어) 편집물 등으로 출품됐으며, 전람회 기간에 발표회, 기술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기술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과학기술 성과들을 생산과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통신은 보도
 - 개막식에는 로두철 내각부총리를 비롯해 리광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진 교육상, 관계부문 과학자와 근로자들이 참석

- **北 전역에서 ‘미용성형’ 유행(9/30, 연합)**
 -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서도 여성들 사이에 쌍꺼풀, 눈썹 문신, 입술선 살리기, 얼굴 주름 펴기, 주근깨 없애기 등 ‘미용 성형’이 유행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0일 보도, 좋은벗들은 북한 여성들이 일반 병원이나 개인 시술업자로부터 간단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언급

- **9·9절 계기, 80여개 문화시설 건설(9/30,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정권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공장.기업소와 문화시설 80여 개가 건설되고 60여개가 개진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0일 보도, 방송은 ‘선군으로 더욱 굳건해진 나라의 경제력’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성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 영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줌으로써” 이룩된 것이라고 주장
 - 또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정초부터 사나운 눈보라와 삼복의 무더위도 가리지 않고 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도하면서 우리 인민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 일으켰다”고 방송은 선전



- **北 김책공대, 80여개학과 30여개로 통폐합(9/30, 조선신보)**
 - 북한의 이공계열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종전의 80여개 학과를 30여개로 통폐합했으며 정보·나노교육 등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신문은 박길호(67) 김책공대 교무부 부부장의 말을 인용, “학생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기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학과를 대폭 통폐합했다고 언급

- **北, 평양영화제 유럽영화가 절반 차지(9/30, 조선신보)**
 - 9월 17~26일 열린 제11차 평양 국제영화제 출품작중 절반가량이 유럽 영화였으며, 인간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 이 신문은 이번 영화제 출품작 수는 110편으로 제10차(2006.9) 때의 70여편보다 대폭 늘었다면서 “총 50편의 유럽 영화들이 출품돼 총 작품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소개
 - 신문은 이번 영화제의 특징으로 ‘반전평화’, ‘가정의 행복’, ‘여성의 권리옹호’ 등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파고 든 작품들이 수많이 출품된 것”을 꼽으며 “올해 2월에 진행된 제11차 상하이영화축전 최우수 연출가상을 받은 러시아영화 ‘장거리 운전수 무하’, 2006년 아카데미수상작인 독일·오스트리아 합작영화 ‘화폐 위조자들’, 영국영화 ‘엘리자베스 1세’ 등 7편의 작품이 호평 속에 상영됐다”고 보도

- **평양에서도 日 디지털방송 수신 가능(9/30, 자유아시아방송)**
 - 일본의 고화질(HD)급 디지털방송이 최근 송출력을 높임에 따라 서울은 물론 평양 등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방송의 수신이 가능하게 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 일본은 자국의 난시청 문제 해소와 지상파 방송의 무료 서비스를 위해 방송위성 디지털방송을 도입한 뒤 송출력을 높이면서 최근 서울 지역에서 NHK1, NHK2, 후지TV, 아사히TV 등 일본 위성방송 채널이 10개 이상 수신되기 시작

- **北, 내일부터 인구센서스 실시(9/30, 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FPA)의 후원 아래 14년만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가 내일부터 시작
 - 북한은 15일까지 전역에서 현장조사 요원 3만5천200명과 지도요원 7천500명을 동원해 가가호호를 방문, 나이, 성별, 결혼여부, 가족수,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소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교육수준, 국가내 이동, 장애 유무, 출생률, 사망률, 화장실 유무, 난방과 상하수도 유무 등 총 53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UNFPA 요원 12명도 이 조사에 참여, 북한 전역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60개군을 직접 방문, 질의와 조사표 작성 과정을 지켜보고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며 일부 응답자



에 대해선 직접 재조사해 북한 요원의 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도 비교

- 이번 조사 비용 550만달러가운데 400만달러는 한국 정부가 지원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 美, 제2 조선전쟁 도발 노려(10/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최근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이 그 출로를 “제2의 조선전쟁 도발”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이날 ‘날로 노골화되는 제2 조선전쟁 도발책동’이라는 글에서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안팎의 반발과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상세히 전하고 “미국의 호전계층은 지금 극도의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바로 제2의 조선전쟁 도발에서 찾으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이는 “오산”이라고 강조

● 북·미, 핵 ‘분리검증안’ 의견접근한 듯(10/4,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미가 그동안 첨예하게 맞서왔던 핵 검증체계 구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에 이은 핵시설 복구 움직임, 재처리시설 재가동 통보 등으로 한껏 높아지던 위기감도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도 감지됨. 북한이 이르면 1일 단행하겠다고 밝혔던 재처리시설 재가동도 아직 실행에 옮겨졌다는 징후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힐 차관보는 2박3일 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3일 서울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이며 길고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본국 보고와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음.
-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협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10월에 6자회담 차원의 협력이 있어야겠다고 하리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해 협의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
- 힐 차관보는 이번 방북에서 정식 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시설을 먼저 검증한 뒤 북·미 간 비공개 의사록에 담은 우리농축촉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문제는 추후 검증한다는 내용의 ‘분리 검증안’을 북한에 제안해 어느 정도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미국이 주장해 온 ‘샘플채취’와 ‘미신고시설 방문’ 등 두 가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힐 차관보가 이번에 건넨 방안은



양측이 한걸음씩 물러나 북한이 ‘샘플채취’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미신고시설 방문’에 대해서는 당장은 고집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임.

- 특히 한.미 수석대표가 동시에 고위층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쳐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음. 김 숙 본부장은 “한.미간 외교장관 또는 그 이상인 정상간 협의도 필요하다면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고 힐 차관보도 “외교장관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 받을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하는 지를 지켜보자”고 언급

● **美, 北 영변핵 검증만으로 테러지원국 해제(10/3, 요미우리신문)**

- 북한의 핵계획 신고 검증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양국의 협의에서 검증 대상을 영변 핵시설 등 지난 6월 신고한 시설·활동을 핵무기와 농축우라늄 계획, 확산활동 등의 미신고 시설·활동과 분리하는 ‘검증 패키지’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
- 신문이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 제한적인 검증계획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며, 그와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을 잠정적으로 해제, 그런 다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 등의 포괄적인 검증에 대해 북한이 협력한다는 의향을 표하게 된다고 신문은 보도

● **평양 간 힐, 더 머물기로(10/2, 연합)**

- 핵 검증 협의를 위해 1일 방북했던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차관보가 당초 2일 서울로 돌아오려던 일정을 바꿔 평양에 더 머물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2일 보도, 이 소식통은 “미국측으로부터 힐 차관보가 2일 서울로 오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며 “현재로서는 3일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
- 힐 차관보는 이번 방북에서 검증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유연해진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라이스, 北에서 힐 차관보 초청(9/30, 미국무부)**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세번째 북한 방문과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힐 차관보를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국무부가 30일 보도
- 라이스 장관은 또 “검증의정서 문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어떤 말을 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임. 힐 차관보는 방북에 앞서 30일 서울에 도착했으며 1일째 세 번째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



나. 북·중 관계

● 北, 평양에 주부교육센터 개소(10/3, 조선신보)

- 북한이 중국과 협력해 평양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센터를 설립,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중국의 전국부녀연합회는 “(조(북)중 두 나라 여성들 사이의 친선교류를 넓히고 두 나라 여성사업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9월 17일 ‘조(북)중 여성양성센터’를 개관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이 센터는 2007년 4월 평양에서 조인된 ‘조중 여성합작 의향서’에 의해 설립됐으며 컴퓨터, 요리, 미용, 안마, 의류가공, 건강스포츠 등 가정주부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센터는 컴퓨터기술전습실, 요리기술강의실 및 실습장, 건강치료체육보급실, 미안(피부미용) 및 안마보급실 등 각종 교육시설과 함께 식당과 상점, 한증막과 같은 부대 편의시설도 갖췄으며 강사진은 대학 강의 경험자나 우수 대학졸업생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짐.
- 신문은 “무상 기술전습과 봉사(서비스)교육”을 받기 위해 30~50대 주부들이 센터를 방문, 현재 40여명의 여성이 제1기 컴퓨터, 요리실습반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소개, 수강기간은 20일로 1년에 20기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평양시내 곳곳에 피복가공, 수예, 악기연주 등을 위한 센터 부속건물도 설립할 계획이라 밝힘.

● 건강이상설 김정일, 후진타오에 축전(9/30, 조선중앙통신)

- ‘건강이상설’ 속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0일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중국 건국 59주년 축하전문을 보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와 공동명의 축전에서 “우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9돌에 즈음해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낸다”고 표현

● 북한 경비정, 중국 어선에 기관포 발포(9/29, 연합)

- 인천해양경찰서는 9월 27일 오전 9시40분쯤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요동은 146호가 북한 경비정이 쏜 것으로 보이는 20mm 기관포탄 2발을 맞았다고 29일 발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해군의 20mm포탄은 외피가 노란색이지만, 중국 어선이 맞은 포탄의 외피는 노란색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북한측이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이로 인해 중국 어선 선장 쿵판성(孔凡生·44)씨가 머리와 오른쪽 다리에 포탄 파편이 박히는 등 크게 다치자 선원들이 국제 공용



통신망을 통해 해경에 구호를 요청했고, 해경이 해군 2함대에 다시 연락해 해군 고속정이 백령도 서북쪽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가서 이날 오전 11시쯤 부상한 쿵씨와 선원 1명을 태워 백령도로 후송

- 군 소식통은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문제의 중국 어선은 북한측에 돈을 주지 않고 조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북한 군당국은 NLL 인근에서 돈을 낸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만 사실상의 허가증을 내주고 조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북·러 관계

● 北 나진-러 하산 철도 개건 착공식(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하산을 잇는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의 개건 착공식이 4일 나선시 두만강역 지구의 조.러(북한-러시아) 친선각 앞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착공식에는 북한의 전길수 철도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과 러시아의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 차관, 발레리 수히닌 주북 대사, 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대표단, 세르게이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 등이 참석
- 착공식에선 혼합선 철길 부설작업이 진행됐으며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을 기념하는 표식비가 제막됐다고 통신은 보도

라. 북·일 관계

● 조선청년동맹 간부대표단 방북(10/1, 조선중앙통신)

- 고덕우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최성영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간부대표단이 1일 각각 평양에 도착했으며, 방북했던 서정인 부학장을 단장으로 한 조총련 조선대학교학생 조국방문단은 1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총련 ‘조선통신’ 창립 60돌(10/1, 민주조선)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뉴스통신사인 조선통신사가 1일로 창립 60돌을 맞이함. 조선통신은 북한 정권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1일 ‘건설통신’으로 창간된 뒤 1953년 3월1일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지난 60년간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노선, 정책, 입장을 외부 세계에 소개하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북한으로부터 ‘김일성 훈장’을 받기도 함.
- 민주조선은 1일 조선통신의 창립기념 논설을 통해 조선통신이 “공화국(북한)의 유일한 해외 통신보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며 “전후 잿더미를 털고 일어서는 조선(북한)의 투쟁 모습, 전설 속의 천리마를 현실로 불러내 사회주의 공업화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용을 널리 소개”했다고 언급

*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조선통신은 창립 이후 미 군정 당국 등에 의해 1950년 9월30일부터 2년여간 발간이 중단됐다가 1952년 12월20일에 복간됨. 조선통신은 북한의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의 국문기사를 받아 일본어로 번역해 발간하는 역할로 출발했지만 1961년 5월 국문판을 창간하고 1964년 5월부터 영문판 ‘코리안 데일리뉴스’도 발행을 개시함. 조선통신은 일본의 각 언론사 및 세계적인 외신사들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연합뉴스가 조선통신과 계약을 맺고 중앙통신 기사를 수신하고 있음.

- **北, 총독부설치 98주년 日에 과거청산 촉구(10/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일제의 조선총독부 설치 98주년을 맞아 일본에 “과거청산 용단”을 촉구
 - 신문은 “오늘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이 그에 대해 성근(성실)하게 인정, 반성하고 배상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로, 도덕적·역사적 의무로 되고 있다”며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과거청산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고 그것은 국제사회계의 공감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도 하루빨리 과거청산의 용단을 내리는 게 “일본 자신에게도 유익하다”고 주장

마. 기타외교 관계

- **김영남, 통독 18주년 축전(10/3,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독일 통일 18주년을 맞아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고 “두 나라 사이 협조적인 유대가 호상(상호) 이익에 맞게 확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나이지리아 독립 48돌 즈음 기념 연회 개최(10/2, 조선중앙통신)**
 - 유수프 아무다 아부바카르 북한 주재 나이지리아 대사가 1일 박의춘 외무상, 문재철 대외문화연학위원회 위원장대리,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보도, 북한과 나이지리아는 1976년 5월 25일 수교
- **시리아 군 대표단 방북(10/2, 조선중앙통신)**
 - 나지브 바라카트 훈련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시리아 군대 훈련·교육일꾼 대표단’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북한의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하고 주체사상탑과 국제친선전람관, 대성산 혁명열사릉 등 평양시 일원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군 대표단은 9월 27일 평양에 도착했으나, 북한 군부 인물들과 면담에 관한 보도는 나오지 않음.

● **태국 외무부 대표단 방북(10/2, 조선중앙통신)**

- 29일 방북한 타리트 차룡바트 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태국 외교부 보도총국 대표단이 1일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싱가포르 대사에 정성일 임명 (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싱가포르 주재 대사에 정성일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싱가포르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정성일이 임명됐다”고 밝힘.
* 정성일 대사는 북한 외무성 군축과 과장을 거쳐 아주국 부국장을 지냈음.

3. 대남정세

● **경수로사업 이자만 6천억(10/3, 연합)**

- 정부가 대북 경수로 사업에 따른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차관을 ‘국채 돌려막기’식으로 부담함에 따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가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이범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수로 사업 관련 국채발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종료된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KEDO 차관은 1조3천743억원이지만, 2008년 8월 현재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에 총 5천9천71억원이 지출됨.
- 이는 KEDO 차관을 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온 정부가 만기 도래 국채를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막아온 데 따른 것에 기인, 이 같은 이자 상환액은 전체 경수로 차관액의 44%에 해당하며,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부담하는 실제 채무는 1조9천714억원에 달하게 됨. 또한 그동안 ‘국채 돌려막기’로 인해 발행된 국채의 총 규모는 4조3천370억원에 이룸.

● **개성공단 기업 애로 1위, 남북관계 불안감(10/3, 연합)**

-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남북관계 악화를 기업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개성공단에 입주한 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34.5%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불안감’이라고 답했다고 3일 보도, 이어 ‘3통(통행·통관·통신)문제의 어려움’이 28.9%,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인력조달의 어려움’이 각각 17.1% 순임.



● **남북 겨레말큰사전 편찬회의 개성 개최(10/2, 연합)**

- 남북한 언어학자가 공동 집필하는 ‘겨레말큰사전’ 15차 편찬회의가 10월 29~30일 개성에서 개최
-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4차 편찬회의 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양측 편찬위원장인 권재일 서울대 교수와 문영호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장을 포함해 편찬위원 40명정도가 참석할 예정, 남북 공동편찬위는 2011년까지 기본적인 집필을 마무리하고 2013년 약 30만 어휘의 사전을 펴낼 계획임.

● **통일부, 남북간 모든 합의 정신 존중(10/2, 통일부)**

- 정부는 2일 작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선언의 채택 1주년에 즈음해 기존 남북간 모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간 합의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신에 기초한 것들”이라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간 모든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힘.
- 김 대변인은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정부는 10·4 선언 1주년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별도 성명이나 논평 발표 없이 이날 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으로 갈음키로 했으며 당국 차원의 별도 기념행사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발표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북핵관련 북한과 추가회담 계획중” <NYT> (10/4)

- 북한 핵 검증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향후 북한과의 추가회담에 대비해 국무부 관계자를 서울에 남겨놓았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4일 보도. 신문은 북한을 방문했던 힐 차관보가 북핵 검증과 관련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평양을 떠났지만 국무부 관리들은 힐 차관보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방북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4일 서울을 떠나면서 수일 내로 평양을 다시 방문해 추가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리인을 서울에 남겨놓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 이에 따라 국무부 관리들은 북핵 협상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IAEA 대북결의 채택..북핵 외교적 해결 촉구(10/4)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북한에 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를 촉구하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IAEA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음.
-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2차 연례총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IAEA의 대북 결의는 북한이 최근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재처리시설 재가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불능화 작업의 조기 재개,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불능화 작업 및 동반 조치의 완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결의는 또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IAEA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 검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음. 북한은 국제기구보다는 미국, 또는 6자회담 관련 핵보유국들의 검증을 선호하고 있음.
- IAEA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 시설을 일주일 내에 재가동하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IAEA 검증팀의 재처리시설 접근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었음. 그러나 독일의 dpa 통신은 IAEA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아직은 플루토늄 작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 북한 방문을 마친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전날 서울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었음.
- 한국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동이 “6자회담의 전망에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본도 북한의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6자회담 합의로 복귀하라고 요구했음.

● 힐, 中·러에 방북 결과 설명(10/4)

-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지난 3일간의 방북기간 이뤄진 북한과의 핵검증 협의 내용을 설명.
- 이날 서울을 출발해 베이징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해 지난 1~3일 진행된 방북 협상 결과를 전달했다고 주중 미국대사관이 밝혔음. 힐 차관보의 방북 기간 북한이 북핵 검증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현 상황과 연관된 중요한 역제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는 이날 회동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내용과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사람은 또 북한의 강경 입장 선회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북핵 협상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음.
-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이번 회동에서 차기 6자회담의 개최를 요청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회동의 목적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우 부부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볼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음. 그는 이어 이날 오후 주중 러시아 대사와의 회동을 갖고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 지난 1~3일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박의춘 외무상,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의 리찬복 대표 등과 만난 힐 차관보는 3일 서울에서 북한과의 핵 검증협약에 대해 “실질적이며 길고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평가했음.
- 외교가에서는 힐 차관보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을 먼저 검증한 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등은 추후 검증하자는 ‘분리 검증안’을 북측에 제시해 호응을 얻었고 북한이 미국의 검증 요구를 수용하면서 남북 동시 사찰을 주장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주중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이날 저녁 베이징을 떠나 일본 도쿄로 건너가 일본측 관계자들과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

● “美, 영변 핵폐기물저장소 시료채취 핵심목표”<RFA>(10/4)

-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물 저장소를 비롯해 영변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를 허용하면 영변에 국한한 검증도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정통한 외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이 외교 전문가는 RFA와 인터뷰에서 “현재 미북 검증 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영변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sampling)를 허



용할 수 있을지 여부”라며 “북한이 이에 동의한다면 부시 행정부도 영변에 국한한 검증안의 수용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미국은 북한에 이미 제시한 검증의정서 초안에서 특히 시료 채취와 관련, 기존의 5MW급 흑연감속로는 물론 구소련이 제공한 연구용 원자로의 알루미늄, 그리고 모든 핵물질과 핵폐기물 등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했다고 이 방송은 설명했다.
- 이 전문가는 “영변 핵시설내 2~3개의 핵폐기물 저장소는 북한이 재처리한 핵물질 증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시료 채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핵폐기물 저장소를 포함 영변 핵시설에서의 시료 채취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검증은 서로가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절충하면 되지만 북한이 시료 채취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검증 합의안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韓·美·日 8개국, IAEA 대북 결의안 마련(10/4)

- 한국 등 8개국은 3일 북한의 핵불능화 작업 재개를 촉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 AFP 통신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8개국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면서 북한이 “핵불능화 작업을 조속히 재개해 이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IAEA에 의한 모니터링과 검증작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전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달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제52차 IAEA 연례총회는 4일 폐막을 앞두고 있음. IAEA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기 준비하고 있으며 IAEA 검증팀의 재처리시설 접근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었음.

● 힐 “北과 실질적.구체적 논의했다”(10/3)

-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주로 협의했으며 박의춘 외무상과도 만났다고 전했다. 힐 차관보는 특히 북한군 관문점대표부의 리찬복 대표 등 북한군부 사람과도 만났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음.
- 그는 ‘북한이 재처리시설 가동중단을 약속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며칠 전 재처리시설의 봉인을 제거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이후 진행된 사항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검증원칙에 대한 타결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면



서도 “나머지 나라들과도 협의해야 하고 (힐 차관보가) 워싱턴에도 보고해야하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 **힐 차관보, 방북협의 마치고 귀환(10/3)**

- 북한과 핵 검증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던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3일 오후 서울로 돌아왔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힐 차관보가 북측과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늘 오후 3시44분께 판문점을 경유해 남측으로 돌아왔다”면서 “아직까지 협의 결과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서울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과 각각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 사이키 국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 김 본부장과의 회동 전에 힐 차관보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수석대표 회동도 이날 저녁 늦게나 4일 오전 열림.
- 힐 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6월 제출한 핵 신고서 내용을 검증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일 방북했으며 당초 2일 귀환할 계획이었지만 북측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평양 체류일정을 연장했음. 힐 차관보는 4일 중국으로 건너가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할 계획.

● **“美, 北 영변핵 검증만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요미우리>(10/3)**

- 북한의 핵계획 신고 검증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양국의 협의에서 검증 대상을 영변 핵시설 등 지난 6월 신고한 시설.활동을 핵무기와 농축우라늄 계획, 확산활동 등의 미신고 시설 활동과 분리하는 ‘검증 패키지’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
- 신문이 북수의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 제한적인 검증계획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며, 그와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을 잠정적으로 해제한다는 것. 그런 다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 등의 포괄적인 검증에 대해 북한이 협력한다는 의향을 표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 **“北,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10/1)**

- 북한이 2년 전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일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여러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복구하려는 의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식통은 “특히 핵실험장 인근에서 포착되고 있는 연기는 복구 작업에 사용됐던 의복이나 장비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징후가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 6자회담 당사국에 검증계획 제출 기대”(10/1)

- 미국 정부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북핵 신고내역 검증문제와 관련해 검증계획을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언급, 미국 정부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됨.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일로 예정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북한 방문에 대해 “우리의 바람은 그들(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에 우리(미국)가 요구했던 검증체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美, ‘北핵검증 계획 中전달 방안’ 검토”<WP>(9/29)

-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검증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 북한이 중국에 검증계획을 제출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
-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시료 채취, 주요 핵시설에 대한 방문 및 미국이 원하고 있는 다른 요구사항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이는 북한이 지난 8월 핵신고서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제출했던 것과 같은 형식.
- 북한이 핵검증 계획을 중국에 제출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잠정 삭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중국은 북한이 핵검증 계획을 수용했다고 발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나. 미·북 관계

● 美국무부 “北 어떤 결정하는지 볼 것”(10/3)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은 신뢰구축이며, 검증체계는 그 중에서도 중심적 요소”라고 말했다.
- 매코맥 대변인은 “우리는 이 같은 점을 북한에 수도 없이 얘기했으며, (현재 방북중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북한에 대해 이 점을 설명했다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북한이 의무사항을 이행한다면 우리도 의무사항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코맥 대변인은 힐 차관보가 방북일정을 하루 더 연장한 데 대해서는 “힐 차관보가 (워싱턴으로) 연락을 해 왔지만 북한의 통신사정도 있어서 완전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번 협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볼튼 “북 붕괴 두려워하지 말자” <WSJ> (10/2)

-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주의자인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는 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인해 촉발된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관련, “전세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볼튼 전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낸 기고문에서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의 사망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환영해야 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북한 정권의 위기는 군사적으로 북한의 통제 불능 상태를 유발 하면서 핵무기 사용의 악몽을 상정할 수도 있고, 수천만명의 난민이 흘러 나오는 경제적·인권적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가치를 한 단계 높여서 본다면 잠재적인 재앙의 와중에서도 한반도가 민주적 법치국가로 통일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최소한 그것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군부 강경론자들의 수중에 들어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화학·생물학 무기들이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위협은 한미연합사령부의 긴급 대응계획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국무부 “힐 北에 새 제안한 것 없다” (10/2)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핵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인 핵검증 체계 구축과 관련해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1일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북한에 가서 (6자회담의)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얘기는 했겠지만, 검증체계에 변화를 준다든가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제안을 들고 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 그는 힐 차관보가 새로운 제안도 없으면서 굳이 방북을 강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북한이 초청을 했고, 힐 차관보는 초청을 수락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또 매코맥 대변인은 “힐 차관보가 북한에 직접 가서 사태진전이 가능할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비행기 샅이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북한의 상대와) 머리를 맞대고 검증체계 문제와 관련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설명하는 일을 시간낭비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

● 美 고위관리 “김정일, 여전히 北 국정 장악” (10/1)

- 북한 상황에 정통한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병으로 쓰러진 것은 맞지만 발병 원인을 ‘뇌졸중’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현재는 회복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관계자는 RFA와 인터뷰에서 특히 “지금 이 순간 김 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핵시설 원상복구와 같은 결정에 동의하거나 혹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만큼 현재 건강이 좋다고 보며, 또 이처럼 막중한 결정이 김 위원장의 인지와 동의없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상상하긴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핵심 부처와 국무부를 두루 거친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현재 나의 평가”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 **오바마측 “6자회담으로 부족..북미 직접대화 필요”(10/1)**

-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6자회담만으로는 부족하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북미 직접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는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를 비단 북한의 비핵화에만 맞추지 말고 북한의 인권, 불법적인 활동, 경제, 정치적 개혁, 재래식 무기 위협의 감축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

● **라이스 “北에서 힐 차관보 초청”(10/1)**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세번째 북한 방문과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힐 차관보를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30일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전날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누하이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힐 차관보에게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면서 “검증체제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검증체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검증의정서 문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어떤 말을 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고위관료 “부시임기내 검증의정서 마련 절대 가능”(9/30)**

-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조치의 발효를 늦추고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의 재가동 계획을 밝히는 등 북미간 핵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부시 행정부의 현직 고위관료가 부시 대통령 임기내 북핵 검증의정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해 주목됨. 이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증의정서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며 “특히 부시 행정부 남은 임기중에 검증의정서를 마련하는 일은 전적으로(absolutely) 가능하다”고 말했다.

● **“부시, 北 테러지원국 명단서 삭제해야”<NYT>(9/29)**

- 북미간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경계심과 유연



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NYT는 이날 ‘어려움 겪고 있는 대북 협상’ 제하의 사설을 통해 “만일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명단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조속히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라고 제안했음.

- 신문은 특히 “미 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검증 계획을 먼저 수용해야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검증 계획은 패전국만이 받아들일 법한 것”이라며 미국 요구의 무리함을 지적.

다. 중·북 관계

● 中학자 “中에 北완충지대 가치 대폭 하락”(10/2)

- 중국의 이익 관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가치는 대폭 하락했으며 도리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연변대학의 김강일 교수가 2일 주장.
- 김 교수는 이날 평화문제연구소와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이 이 대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한·중 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냉전시대 북한이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완충지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북아지역의 국제역학 구도의 변화로, (중국에선) 북한을 더 이상 전략적인 완충지대로 인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에 불리한 열점(熱點)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말했음.
- 김 교수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냉전시대 혈맹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사실상 새로운 정립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에 중요한 주변국임은 틀림없지만 그 중요성은 더 이상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위치 때문이 아니라 동북아지역 협력의 요충지와 이 지역의 각종 문제 해결에 있어 (풀어야 할) 매듭이라는 측면에 있다”고 설명했다.

● “北·中수교 60주년 다양한 행사 계획”<中관계자>(9/30)

- 북한과 중국은 외교관계 수립 60주년(10.6)이 되는 2009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 것이라고 북한주재 대사를 지낸 우동허(武東和) 중·북 우호협회장이 말했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우 회장은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28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가진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2009년은 중·조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두 나라 사이의 친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주게 될 다채로운 행사들이 다음 해에 진행된다”고 말했음.



라. 일·북 관계

● “北평양에서도 日 디지털방송 수신 가능”<RFA>(9/30)

- 일본의 고화질(HD)급 디지털방송이 최근 송출력을 높임에 따라 서울은 물론 평양 등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방송의 수신이 가능하게 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방송은 국내 방송통신 장비 생산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방송은 남쪽 지역 뿐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도 수신이 가능하다”며 “중국과 북한간 국경지역에서 수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안테나만 좀 큰 것을 단다면 평양지역까지는 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日 관방장관 “‘대화와 압력’ 대북정책 불변”(9/29)

-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28일 북한과의 정책에 대해 “‘대화와 압력’이라는 노선은 변함이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도 완화할 단계가 아니다”며 기존의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들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납치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기타

● 몽골 “韓과 탈북자수용소 건립 논의 안해”<RFA>(10/4)

- 태국 정부가 자국내 탈북자 수용을 위한 난민수용소 건립 문제에 관해 한국측과 “어떤 합의나 협력을 한 적이 없다”고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데 이어 몽골 외교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두 나라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태국과 몽골 등 탈북자들이 많이 체류하는 나라들에 난민수용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한 사실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을 통해 공개된 데 따른 것임.
- 몽골 외교부 관계자는 “몽골내 탈북자 난민 수용소를 만들 계획이 없다”며 그와 관련해 어떤 합의나 논의도 한국측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몽골 관계자는 “지난달 몽골을 방문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몽골내 탈북자나 난민 수용소 설치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음악으로 통일 앞당기는 탈북 피아니스트(10/3)

- 탈북 피아니스트인 김철웅(34) 씨가 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미국 내 연주회 일정을 시작했다. 김 씨는 이날 저녁 뉴욕 맨해튼음대를 시작으로 9일까지 보스턴과 워싱턴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가질 예정.



- 그의 연주회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님. 연주곡 목록에 북한 곡을 굳이 넣는 것뿐 아니라 연주회 중간에 청중과 질문·응답 시간도 갖음.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임. 김 씨는 평양의 고위당 간부의 아들로 태어나 8살에 평양음악무용대에 입학해 피아노를 전공했음. 장성택 조카를 비롯한 고위층 자제들이 학급 동기였고 집에 벤츠가 있었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었음. 하지만, 모스크바 유학 시절 커피숍에서 들은 팝 피아니스트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곡 '가을의 속삭임(A Comme Amour)'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음. 북한으로 돌아와 애인에게 들려주려고 그 곡을 연습하다가 누군가 보위부에 신고하는 바람에 끌려가 일종의 '경위서'를 썼음. 그것이 탈북의 계기가 됐음.

● ICG, 반년만에 북한 '상황악화' 분류(10/3)

- 정치·외교적 분쟁에 특화된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북한을 반년 만에 '상황악화' 지역으로 분류했음. ICG가 1일 발표한 월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북한이 마침내 핵 신고를 하고 미국은 대북(對北) 금융제재를 완화했지만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가 퇴색한 데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했음.
- ICG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9월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의 영변 핵시설 접근을 차단하고 26일에는 핵 재처리시설의 재가동을 공언했다고 소개했음.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지 않는 데 대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6자회담의 진전을 더욱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

● 새정부 첫 군사회담 종료..北 '전단'문제 거론 주목(10/2)

-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은 북측의 대통령 비방 및 금강산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북측은 남측의 뼈라(전단) 살포행위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음.
- 남북은 2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현 정부들어 첫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이처럼 양측의 주장을 주고받은 뒤 1시간 30분만에 회담을 종료했음. 국방부는 "오늘 회담에서 우리 측은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담인 만큼 최근 남북관계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북측은 우리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를 문제 삼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고 밝혔음. 이상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을 비롯한 3명의 남측 대표단은 회담에서 북측이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상호 비방을 중단키로 한 남북간 합의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뒤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 “北 미사일 발사시설 개보수 정황 포착”(10/2)
 -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미사일 기지의 발사시설을 개보수한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음. 군 소식통은 2일 “북한의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기지 움직임에 대해 미국 측과 정보를 공유해 왔다”면서 “최근 북한이 무수단리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시설을 교체하는 등 대폭적인 개보수작업을 벌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음.

- 베네룩스 기업들 방북..대북 투자 추진(9/30)
 -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의 기업들이 30일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대북 투자를 적극 추진. 3국 기업인과 중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 4박5일간 북한의 정보기술(IT) 연구를 주도하는 ‘조선컴퓨터센터(KCC)’와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센터 등을 둘러보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함. ‘베네룩스 3국 상공회의소’는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29일 베이징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북한의 산업 발전상을 비롯해 투자처로서의 장·단점 등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방북단을 이끄는 국제정보기술자문회사 GPI 컨설턴트의 폴 차아 대표는 설명회에서 “북한의 IT 분야 종사자들은 기술 수준이 높고 애니메이션, 기업행정 응용프로그램, 웹사이트 제작 등으로 분야별로도 전문화돼 있다”면서 “북한은 유럽 기업들의 역외시장 및 아웃소싱 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음.

- 北, 내일부터 인구센서스 실시(9/30)
 -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FPA)의 후원 아래 14년만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가 내일부터 시작. 북한은 15일까지 전역에서 현장조사 요원 3만5천200명과 지도요원 7천500명을 동원해 가가호호를 방문, 나이, 성별, 결혼여부, 가족수,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소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교육수준, 국가내 이동, 장애 유무, 출생률, 사망률, 화장실 유무, 난방과 상하수도 유무 등 총 53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오바마 당선뒤 한국 방문 원해”<美 민주당 한반도정책팀장>(10/3)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본부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은 2일 “버락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방문하길 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민주당 부통령후보인 조 바이든 상원의원의 보좌관이기도 한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은 이날 저녁 워싱턴 인근 한인타운 애난데일에서 열린 한국 동포들의 오바마 지지모임에서 한반도 정책과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오바마 후보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말했다.

- 자누지 팀장은 오바마 후보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가 내년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자누지 팀장은 오바마 후보는 북한이 검증을 허용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폭파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자누지 팀장은 북한이 한꺼번에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그리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정부, ‘해경사망’ 中대사에 유감전달(9/29)

- 정부는 29일 한국의 수역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우리 해양경찰관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조태영 동북아 국장이 오늘 오후 닝 대사를 초치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가 향후 중국 어선의 한국 수역내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국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우리 수역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불법조업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단속하는 우리 당국에 대한 중국 어선의 폭력대응이 증가해오다 결국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던 우리 해경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 이에 대해 닝 대사는 ▲불행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크게 중시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중국 정부가 그동안 해오던 불법조업 근절 교육을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7일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광주(光州) 영사사무소의 수석영사가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명한 것은 중국 정부를 대표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 해경에 따르면 중국 선원 11명은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 잡이를 하던 중 단속을 위해 배에 오르려던 박경조 경위 등 한국의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박 경위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다. 한·러 관계

● **李대통령, 러시아 방문 마치고 귀국(10/1)**

- 이명박 대통령은 3박4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1일 귀국했음.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기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 등 러시아 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하는 등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음. 또 이르면 2015년부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하는 등 1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음. 양국 관계 격상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친 실질 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음.

● **한·러, 에너지·과학·금융 등 26개 협정 체결(9/29)**

- 한·러 양국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첫 공식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금융 분야 등에서 26개 협정을 체결했음. 양국은 우선 사증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초청장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단기복수사증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질 및 광물자원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광물자원 협력 약정도 체결했음. 또 나노기술 공동협력 양해각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양해각서, 금융협력 계약 등도 이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와 기관의 서명식을 통해 체결됐음.
- 한편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활용한 양국간 물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이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TSR의 조기 연계 및 효율적 물류수송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국경이 연결해 있는 극동러시아지역에서 한·러 양국이 항만을 공동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했음.

● **한·러, 北경유 천연가스 배관건설 추진(9/29)**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모스크바 크렘린 대궁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러시아 산(産) 천연가스(PNG.Pipeline Natural Gas)를 우리나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음. 이를 위해 이날 정상회담 직후 양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국영가스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양해각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최소 750만t의 천연가스를 30년간 도입키로 하고, 이에 앞서 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러시아 국경에서 북한을 통과해 우리나라로 연결



되는 가스배관 건설에 대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음. 이번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0년께 최종계약이 체결되고, 이르면 2015년께 우리나라에서 한·러간 천연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한·러,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9/29)

-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의 크렘린 대궁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 양 정상은 또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및 북한 경유 가스배관 설치 공동 연구,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 한국의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을 포함한 우주분야 협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경제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양국 관계가 이처럼 격상됨에 따라 그동안 중심이 돼 온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친 실질 협력이 확대되게 됨.
-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외교당국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군 인사 및 군사기술 교류 등 국방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
- 또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교 20주년을 중대한 행사로 기념하기로 했으며,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발급 간소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음.
- 아울러 ▲양국 정사간 긴밀한 교류 지속 ▲첨단기술분야와 극지연구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한국의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을 비롯한 양국간 우주분야 협력 확대 ▲문화·학술·청소년·체육 분야 교류 확대 ▲러시아의 국제우라늄 농축센터(IUEC) 구상에 대한 협력 모색 ▲한반도중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추진 ▲국제기구 및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조강화 및 공동 대처 등에도 합의했음.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토록 요청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음.
- 양정상은 회담 직후 단기복수사증협정, 광물자원협력협정, 가스공급 양해각서, 금융협력 계약 등 26건의 각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李대통령 ‘3대 新실크로드’ 건설 제시(9/29)

- 러시아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양국간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3대 신(新) 실크로드’ 건설을 제시한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음. 이 대통령이 피력한 3대 신 실크로드는 ‘철(鐵)의 실크로드’, ‘에



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로, 철의 실�크로드는 시베리아횡단 철도(TSR)와 한반도횡단철도(TKR)의 연결로 태평양에서 유럽을 잇는 '철로의 대동맥' 건설을 뜻함. 에너지 실�크로드는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건설 경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하는 것이며, 녹색 실�크로드는 러시아 연해주의 광활한 농림지에 우리의 영농기술과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접목해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루는 것.

- 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것은 동북아 경제권에 러시아가 합류한다는 것을 뜻하며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계획하고 있는 동부권 지역개발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의미도 된다”면서 “나아가 북한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북한 경제를 돕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한국-북한-러시아간 3각 협력체계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이 대통령은 “나는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과감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투자를 요청한 뒤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 산업의 발전에도 우리 기업이 동참할 수 있기를 적극 기대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한-러관계 유공자 서훈 수여(9/29)**

- 러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모스크바 크렘린 영빈관에서 빅토르 페트로비치 이바노프 마약통제청장 등 한-러 관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서훈을 수여했음.
- 이바노프 마약통제청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최측근으로, 푸틴 총리의 대통령 시절 인사보좌관을 지내면서 러시아 대통령실 간부들의 방한 연수 파견을 추진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서훈을 받았음. 또 아나톨리 드미트리예비치 아르타모노프 칼루가주(州) 주지사는 삼성전자, 롯데제과, KT&G, 신창건설 등 한국 기업의 러시아투자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아나톨리 니콜라예비치 페르미노프 연방 우주청장은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로 각각 이 대통령으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음.
- 이 대통령은 서훈 친수식에서 “오늘 이렇게 훈장을 받은 분들은 이제 절반은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면서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음.

● **李대통령 “러시아어 한국교과서 지원 검토”(9/29)**

- 러시아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어로 된 (한국)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동포 10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러시아 동포들이 3, 4대 까지 가면서 모국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역시 고려인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음.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 조상들은 매우 용기가 있었고 조국을 사랑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같이 여기에 온 것은 정부에서 외국동포 2, 3세 모국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라. 기타

● 한·뉴질랜드, 영화 공동제작 협정 체결(9/29)

- 한국과 뉴질랜드가 29일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양국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음.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뉴질랜드 국회 의사당으로 헬렌 클라크 총리를 예방, 영화 공동제작 협정에 서명한 뒤 양국간 문화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한국은 최근 들어 뉴질랜드에서 ‘실미도’, ‘올드 보이’, ‘런드리 워리어’ 등 여러 편의 영화를 찍었을 뿐 아니라 자본을 투자해 뉴질랜드와 합작으로 ‘검은 양’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영화 제작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클라크 총리는 이날 한국과의 영화 공동제작 협정에 서명한 뒤 여러 편의 영화 공동제작이 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협정 체결로 영화 제작자들이 그 같은 계획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 장관은 “뉴질랜드와 영화 공동제작 협정 체결로 제작과 영화기술에서부터 홍보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양국이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 영화가 앞으로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데 있어 뉴질랜드가 중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방콕서 한·태 수교 50주년 공연(9/29)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태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내달 1일 서울과 방콕에서 ‘한-태 미래를 향한 동반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공연 무대를 마련.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우스니 프라모의 지휘로 방콕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알렉산드라’, ‘우울한 하루’ 등 태국 라마 9세 푸피폰 국왕이 작곡한 15곡을 연주함. 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음악 신동 박예람의 플루트 협연과 이용구 중앙대 교수의 단소 협연도 펼쳐짐.
- 방콕의 타이문화센터에서는 국립무용단이 ‘화관무’, ‘사물놀이’, ‘부채춤’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판타지’를 공연. 서울 행사에서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방콕 행사에서는 김장실 문화부 1차관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할 예정.



[참고 1] 역대 한러 정상회담 일지(연합뉴스, 9/29)

- ▲1990. 6 = 노태우 대통령-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한.蘇 수교원칙에 합의
- ▲1990.12 = 노 대통령 소련 방문,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
- ▲1991. 4 = 고르바초프 대통령 방한, 노 대통령과 회담
- ▲1992.11 = 보리스 옐친 대통령 방한, 노 대통령과 회담
- ▲1994. 6 = 김영삼 대통령 방러, 옐친 대통령과 회담
- ▲1999. 5 = 김대중 대통령 방러, 옐친 대통령과 회담
- ▲2000. 9 = 김 대통령 유엔 천년정상회의 계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
- ▲2000.11 = 김 대통령 브루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2001. 2 = 푸틴 대통령 방한, 김 대통령과 회담
- ▲2001.10 = 김 대통령 중국 상하이(上海)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2003.10 = 노무현 대통령 태국 방콕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2004. 9 = 노 대통령 방러, 푸틴 대통령과 회담
- ▲2005. 5 = 노 대통령 방러, 푸틴 대통령과 회담
- ▲2005.11 = 푸틴 대통령 부산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노 대통령과 회담
- ▲2006.11 = 노 대통령, 베트남 하노이 APEC 정상회담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2007. 9 = 노 대통령,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2008. 7 = 이명박 대통령, 일본 도야코(洞爺湖) G8 확대정상회담 계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
- ▲2008. 9 = 이 대통령 방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9/29/0503000000AKR2008092703340001.HTML>



[참고 2]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요약(연합뉴스, 9/29)

1.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8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 정상회담이 29일 개최됐다.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1990년 수교 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국 정상은 최근 수년간 한·러 관계가 다방면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금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3. 양측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채널로서 양국 외교당국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한·러 포럼 등 기존의 양자협의채널을 활성화하고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 학술,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문화 및 각종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해, 양국 수교 20주년을 중대한 행사로 기념하기로 합의했다.

4. 양측은 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사증 발급 간소화 등 관련 법적 기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2005년 11월 19일 체결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간의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이 그간 성실히 이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 만족을 표시했다.

양국간 협력 잠재력 실현을 위해 양측은 교역구조 개선, 러시아산 기계·기술장비 및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물량 확대, 경제·통상 협력의 질과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은 러시아의 WTO 가입 희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측은 연방특별프로그램인 '1996-2005년간 및 2013년까지의 극동·시베리아 경제·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감안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의사를 평가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공동문서 작성 준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보다 심도 있는 경제협력을 위해 민간 부문간 대화를 강화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방차원의 대화를 포함하여 한-러 비즈니스 대화를 확대하고,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5. 양측은 가장 중요한 양국 경제협력 대상 중 하나인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러시아와 한국 및 제3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했다. 양측은 서캄차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연방 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는 한국측이 지하자원에 대한 공개경쟁 및 입찰에 참가하고, 석유·가스화학 단지 건설 및 러시아 극동지역 액화가스 기지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환영했다.

양측은 광물자원 조사, 합리적 이용 및 개발 분야의 구체적 사업 실현을 위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6. 양측은 나노기술, 정보화, 원자력에너지, 우주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와 극지연구 등 기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희망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을 포함해 양국간 우주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 체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러시아의 국제우라늄농축센터(IUEC) 구상이 핵 비확산 및 안정적 핵연료 공급을 위해 유용한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이 국제 교통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사업이 극동시베리아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해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수산업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채취, 양식, 가공 및 마케팅 관련 공동사업 발굴에 협조하며,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북서태평양 수역내 불법조업 방지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군 인사교류, 군사기술 등 국방분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행약정 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7. 양측은 국제정세를 면밀히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아태지역의 평화, 안보 및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기구의 틀 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8. 양측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기본원칙의 준수,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 범세계적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제고 등 다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을 포함한 다자기구와 포럼에서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범세계적인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유엔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의 광범위한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국제테러리즘, 초국경 조직범죄, 인구불균형 등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동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등 국제적 도전과 경제·금융 범죄, 해적, 사이버 범죄 등 초국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지역 기구 및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양측은 ‘핵테러 억제협약’의 채택을 지지하고,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방지협약’의 조속한 채택과 테러자금 차단 관련 양국간 협력 증진을 지지했다. 양측은 그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국제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자 차원은 물론 국제 및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따라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수출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9. 양측은 그루지야 사태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해 각각 우려를 표명하고, 동 문제가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6자회담 틀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은 6자회담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러시아측에 설명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및 협력을 지지함을 확인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10.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토록 초청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감사히 수락했다.(끝)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9/29/0503000000AKR2008092911800001.HTML>



[참고 3] **李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연합뉴스, 9/29)**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한국 대표단을 환대해 주신 것을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에게 감사를 드린다. 오늘 단독회담과 공동 회담에서 양국 간 여러 문제를 서로 협의하면서 모든 것이 합의에 이르렀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됐다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오늘 양 정상은 한러관계 발전에 대한 미래 방향 또 북핵 등 한반도 문제, 실질적인 양국협력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관계가 수교 18년 만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를 했다. 두 정상은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정상 간의 상호 방문, 외교당국 간 전략 대화 등 각급 채널 간 교류와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교육 및 투자 증대, 에너지 자원협력을 확대하는 문제, 우주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늘 공동정상회담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협력, 쿼터의 증가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됨으로서의 전용 부두를 만드는 문제까지 서로 논의를 했다.

특히 러시아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한반도에 공급하고 한국의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해서 극동 러시아 항만 개발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앞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서 캄차카 해상 광구 공동개발과 우리 기업 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참여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0년을 각각 한국의 해와 러시아의 해로 지정해서 양국 국민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함께하도록 했다.

두 정상은 북핵 불능화 역행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2011년 블라디보스토크 개최 에이펙 정상회의와 2014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에 참여하도록 서로 의사를 교환했다.

우리 두 정상은 또 대량 파괴무기 확산과 여타 세계적 도전 요인들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우리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서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양국이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빠르게 서로 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서로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 상황을 위해 실무적인 회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논의된 실천 사항에 대한 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에게 감사한다.(끝)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9/29/0503000000AKR2008092920380001.HTML>



[참고 4] 메드베데프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연합뉴스, 9/29)

우리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앞으로 공동성명에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정부의 여러 부처와 민간 경제인 차원의 관계도 발전시키고, 인적교류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단기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은 이 과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앞으로 양국간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함께 추진하면서 우리 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또 양국은 특히 투자 등 교류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이 분야에서는 이미 좋은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양국 교역은 150억달러에 달했으며 올해는 2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200억달러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올 상반기 러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7억4천만달러에 달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의 투자가 거의 3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본다. 에너지 원자력, 교통, 수산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다.

우리는 한반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심이 있고 한국 기업인들이 동시베리아, 극동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이 있다.

또 교육, 문화, 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에서 '한국의 해' 행사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단독회담에서 국제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특히 금융위기에 관해 의견교환을 했고, 관련된 국제적인 접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렇게 하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고 앞으로 남북대화의 진전에 관해 논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주장했고 6자회담에서도 그렇게 될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남북간 정치, 경제, 인도적인 접촉이 계속됐으면 하고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됐으면 한다.

이번 회담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관계가 더 결실있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국제, 지역적인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끝)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9/29/0503000000AKR2008092920450001.HTML



[참고 5] 한러 공동성명 주요 내용(연합뉴스, 9/29)

합의사항	주요내용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양국 정상간 긴밀교류 지속, 정부·의회·공공·민간 부문 교류협력 증진 -외교당국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 개최 -2010년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
인적·물적 교류 확대	-사증발급 간소화 등 관련 법적기반 개선 -교역구조 개선, 경제통상 협력의 질과 수준 향상 공동 노력 -정보교환 촉진, 가공·첨단기술·에너지·천연자원 개발 분야 협력촉진 -극동시베리아 공동개발 협력증진 -한러 비즈니스 대화 확대 -군 인사교류 및 국방분야 교류협력 발전 -수산업 분야 호혜적 협력 강화
자원·에너지 협력강화	-한·러 및 제3국에서 에너지프로젝트 공동추진 -러시아연방내 해상광구개발 사업 협력 -북한경유 러시아 PNG도입 추진
과학기술 협력강화	-한국 소형위성발사체 개발 등 우주분야 협력 확대 -러 국제우라늄농축센터 구상 관련 협력 검토 -한반도중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 협조 -과학기술 지적재산권 보호 시행약정 체결 협의
범세계적 이슈 협력 강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및 아태경제협력체 내 협력 -다자기구 및 다자포럼 내 긴밀 논의 -핵무지비확산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생물무기금지협약 등에 따른 비확산체제 강화 공감
대북문제 등	-6자회담 틀내에서의 협의와 협력 강화 -그루지야사태 평화적 해결 공감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 초청 및 수락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9/29/0503000000AKR2008092913680001.HTML